

축산 소식



한우

한우자조금, 청와대서 한우 할인판매 행사



산지 소값 하락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 6월 16~17일 양일간 청와대에서 한우농가를 돕고 대국민 한우소비촉진 독려를 위한 한우할인판매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청와대가 앞장서서 한우 소비촉진에 동참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마련됐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2층 로비에 마련된 판매 행사장에서는 낮 12시부터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한우정육, 보신세트, 선물세트 등 다채로운 상품을 현장에서 할인판매했다. 이밖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촉진행사의 일환으로 매주 금요일을 한우먹는 날로 지정, 범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남호경 위원장은 “실의에 빠진 한우농가에 힘을 주고 국민들에게 한우

소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판매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우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사를 다각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김동호 기자·kdh0529@afnews.co.kr

양돈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동참 합시다”

양돈협회,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키로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구제역 이후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두가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돼지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kg당 8000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수입육이 한돈시장을 잠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양돈협회가 실시하는 첫 번째 캠페인은 ‘돼지를 120kg 이상으로 크게 키우자’이다. 이는 우리가 보유한 돼지로 더 많은 고기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양돈협회의 주장이다.

일반적인 출하체중인 110~115kg에서 5kg 가량 늘려 115~120kg으로 크게 키워 출하하면, 국산 돼지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돈협회는 농가 사육시스템 상 120kg 이상 사육시

10~15일간의 사육기간, 6%의 사육시설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도축장의 시설문제와 등급판정 변화의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5kg 정도의 출하체중 증가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캠페인은 '등급별 가격정산으로 정산방식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돼지고기 정산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등급별 정산 △지급율 정산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인데 업체별, 지역별로 다양하고 혼란스러워 가격정산 표준화가 요구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 결과 2009년 총 등급판정두수 1388만 8000두를 등급별 정산시 5조 1000억원에 달하지만 농협서울(음성)의 지급을 71% 적용시 4조 5000억원에 그쳐 양돈농가가 약 60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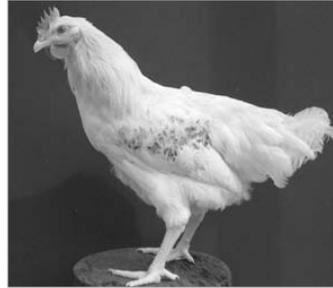
양돈협회는 등급별 정산시스템 도입시 60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절식에 따른 사료 허실 방지로 품질 향상과 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양돈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정산에 관여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경제 • 한정희 기자 • penergy@chukkyung.co.kr

양계 농진청, 형질전환 닭 개발 계란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생산 가능성 제시

농촌진흥청은 닭의 난관 조직에 특이적으로 녹색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형질전환 닭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형질전환 닭은 녹색형광단백질유전자를



닭 배아 세포에 미세 주입하고, 유전자가 주입된 수정란을 인큐베이터에서 21일간 배양해 태어난 닭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39개의 수정란에 녹색형광단백질(OVA-EGFP) 유전자를 주입했고 그 중 24마리의 병아리가 정상적으로 부화됐으며, 태어난 병아리 24마리 중 두 마리가 녹색형광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질전환 닭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 동물바이오공학과 변승준 박사는 “이 방법을 이용해 녹색형광단백질 대신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 유전자로 바꾸어서 형질전환 닭을 생산한다면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계란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축을 하나의 의약품 공장으로서 이용해 바이오의 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유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함유하는 형질전환 소, 돼지 개발 관련 연구는 많은 보고가 되고 있으나, 닭을 이용한 유용단백질 생산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닭은 연간 약 300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완전식품으로써 운반과 보관이 쉬운 장점이 있다.

계란은 입탍의 난관에서 만들어지며, 난관 조직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은 껍질이 형성되기 전 계란으로 이동

돼 계란 내 단백질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암탉의 난관에서 외래단백질을 분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계란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2011년 4월 22일 국제적학술지인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Biochemistry」저널에 게재되었다.

라이브뉴스 · 도나희 기자 · al@livesnews.com

낙농

낙농육우협, 육우데이 맞아 소비홍보

“맛· 안전갓춘 육우고기 좋아요”



“안전하고 맛있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국내산 육우고기 많이 드세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8회 육우데이’를 맞아 기념식을 갖고, 육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성병덕 농협중앙회 상무와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등 축산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인기 탤런트 박해미씨와 전 농구선수 우지원씨가 육우고기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3

단 농구게임, 육우 로데오경기와 1,000인분 육우 불고기 시식행사가 펼쳐졌다.

농민신문 · 양승선 기자

양봉

대한민국 대표벌꿀 공동브랜드 ‘한벌꿀’ 출범식

난립한 벌꿀 브랜드 통합, 유통구조 개선

아카시아 -23.5%, 잡화꿀 -22%, 소비자 신뢰회복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는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로 다가갈 대한민국 대표벌꿀 공동브랜드 ‘한벌꿀’ 출범에 따라 오는 6월 22일(수) 과천 경마공원 내 행사장에서 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다. 본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한국마사회 김광원 회장, 소비자단체장, 농축산단체장, 언론사 대표, 양봉농가 및 관련업체, 소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브랜드 선포식은 주요 기념행사를 비롯한 양봉산물 전시 및 시식회, 밀납초 및 프로폴리스 비누 만들기 체험, 기념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하여 소비자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또한 2015년 세계양봉대회 대한민국 유치를 기원하

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양봉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고취시켰다.

‘한벌꿀’은 그동안 벌꿀에 대한 소비자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먹거리로 거듭나기 위해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한국양봉협회는 양봉산물연구소의 품질검사를 통해 천연벌꿀(탄소동위원소비 아가시아꿀 -23.5%, 잡화꿀 -22%)로 검증된 고품질 벌꿀에 한해 ‘한벌꿀’ 브랜드를 부착하며, 꿀병양 품질관리 스티커를 통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후 생산이력제를 추가하여 품질관리에 철저함을 더할 예정이다.

(사)한국양봉협회 제공



역과 정부정책 등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큰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3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특히,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구제역과 농가방역, 수입 밀수 녹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졌으며 강준수 회장은 국내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수입 밀수 녹용에 대해 뉴질랜드 양육협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한국양육협회 제공

양육

뉴질랜드 양육협회 초청 만찬 참석

지난 5월 25일 인사동에서 뉴질랜드 양육협회 초청 만찬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양육협회에서는 강준수 회장, 안종호 부회장, 정유환 부회장, 천민정 대리가 참석했으며 뉴질랜드 양육협회에서는 Mike O' Connor 뉴질랜드 양육협회장, Rhys Griffith 녹용관련 마케팅 매니저가 참석했다. 뉴질랜드 양육협회는 매년 주변국의 양육산업 시찰에 나서고 있으며 본회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뉴질랜드 양육협회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 해는 Mike O' Connor 뉴질랜드 양육협회장이 직접 방문해 각국의 양육산업 현황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방

